다문화초등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형철
(꿈다미인재교육원)

《목 차》

1. 들어가기
2. 배경연구
  2.1 다문화 학생의 진로장벽
  2.2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
  2.3 진로태도성숙
  2.4 선행연구고찰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2 측정도구
  3.3 자료분석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4.3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4.4 주요변수들 간의 영향
5. 결론

<Abstract>
Myeong Hyeong Cheol. 2018. 5. 31.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Bicultural Self-efficacy on Maturity in Career Attitude for Multicultural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www.kci.go.kr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2, 105-13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recognition and dual cultural self - efficac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I visited 28 elementary schools in Gyeongsangnam-do from April 25th to May 19th, 2017 and studied 305 students of 4th - 6th grade multicultural students, and 280 of them were excluded Respectivel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career barrier recognition, multicultural self -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were 1.92, 3.44, and 3.29, respectively.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uncertainty of future, the lack of career and job information, the greater the economic difficulty, the lower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Respectively.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dual cultural self - efficac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higher the cultural self - esteem, the higher the dual culture positive attitude, the higher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while the higher the bilingual ability,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21.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pursue diverse career programs to improve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by solving career barriers by providing sufficient career and job information to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raising cultural self −efficacy.**(Corporation Dream DAMI Human Research Institute)**

[Key words] Multicultural Students, Career Barriers, Bicultural Self-efficacy, Maturity in Career Attitude, cultural identity

www.kci.go.kr

1. 들어가기

최근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맞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증가[1]로 다문화 구성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17)에 따르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2017년 기준으로 109,387명에 달하고, 초등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2.3%를 넘어섰다. 초·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전체 학생 수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2]하고 있어 향후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언어 문제, 문화적 문제, 외국인 부모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진로고민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언어, 문화, 외모적 차이로 학교생활이나 학교 밖에서 의사소통 갈등, 대인관계 미숙, 학습활동 소극적, 진로 미결정 등의 여러 문제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박주희와 남지숙(2010)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가정 학생보다 불안, 우울, 과다행동 등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

1) 외국인주민이란 외국인 중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국내체류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행자부의 지역사회의 자원관리 필요성에 의해 통용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76만 4,6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사회통합과 보도자료, "2017년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2017.11.15,

2) 2017년 전체 학생 수는 약 573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만 명 감소하였다. 반면에 다문화 학생은 2017년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0만 9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1.9%로 10년 전보다 7.5배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 비해서도 10.3% 증가하였다. 2017년 다문화 학생중 초등학생의 비중은 75.7%, 중학생 14.6%, 고등학생 9.7%이다.

www.kci.go.kr

나타났다. 전경숙(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 및 불안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시기는 진로선택의 결정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들은 자기이해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진로결정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입시제도나 직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진로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중학교로 진학 전 단계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진로의 발달은 진로인식, 탐색, 준비 등과 같은 일련의 단계가 차례대로 단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이클의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이 시기의 진로태도 성숙은 매우 중요하다. 김윤주(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주어진 과업이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태도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그들만이 갖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 특징들로 인해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Lent, Brown 및 Hackett(2000)도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선택 및 진로실행 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 개인적 변인들과 함께 개인을 제약하거나 지원해주는 외적 · 맥락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인 출신 부모와 외국 출신의 부모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중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강점과 역량 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정 등, 2011). 외국출신의 부모 나라 문화와 한국 문화의 상이한 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www.kci.go.kr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능력, 정서적유대감, 이중언어능력, 이중문화자부심과 같은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3]이 필요하다.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문화정체성에 대한 타협 없이 두 문화 내에서 만족하는 방식으로 살수 있다는 신념 또는 신뢰이다(LaFomboise, Coleman, Gerton, 1993).

이러한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은 다문화 초등학생의 심리적응 및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문화 초등학생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초등학생을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벽[4]과 이중문화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5]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구체

---

3)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Bicultural Self-Efficacy)이란 개인의 모국문화와 주류문화에서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사회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두 문화의 가치와 신념, 관습 등을 타협하지 않고 두 문화 안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을 가리킨다.

4) 진로장벽 인식이란 개인이 진로 선택이나 진로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심리적 요인과 외적·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이다(손은령, 2001).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외적 요인을 구분 하지는 않으며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2005)이 진로장벽 인식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한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의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한다. 또한 실제 진로장벽 인식의 존재여부 보다는 개인이 장벽으로 인식하느냐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본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진로장애 요인을 진로장벽 인식이라 한다.

5) 진로태도 성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 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확고한 태도의 발달정도로 정의된다.

www.kci.go.kr

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진로태도 성숙도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진로태도 성숙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다문화 초등학생의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배경 연구

2.1 다문화 학생의 진로장벽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과는 달리 주류문화와 모나 부의 외국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이중문화라는 배경을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부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가치관의 차이를 경험하고, 자신이 주변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어 갈등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박순희, 2009). 이러한 갈등은 자신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정하성(2009)이 실시한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의 고민 및 걱정거리 분석[6]에서 학업문제(33.3%) 다음으로 직업 및 진로문제(13.3%)가 높게 나타났고, 이지민(2013)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진로태도 성숙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발전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검사 중 태도검사로 척도를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이 포함된다.

6) 다문화청소년들의 고민거리는 공부 (성적/적성 등)가 25%, 진학 · 진로가 11.5%,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 진로상담 ·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학생의 가장 큰 잠재력은 '언어'가 61.2%, 예체능 14.4%, 공부4.3% 등의 순이었으며 학업부진 요인으로는 '가족의 학업지도 소홀 30.4%', '개인의 능력 차이 29.0%'가 주된 이유였다. 한국여성정책개발원(2017).

www.kci.go.kr

의 청소년들은 한 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인식은 객관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한 사실이나 환경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중요하다. London(1998)은 진로장벽이 개인, 직무환경, 그리고 이들 간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개인이 이러한 진로장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진로장벽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졌다.

진로장벽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진로장벽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개인이 자신의 잘못된 정서적 · 인지적 요인을 고치면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선중,2005). 한편, 손은령(2002)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진로장벽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내적 장벽은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의 장애들이며, 외적 장벽은 주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들이다. 이러한 장벽들은 진로의 결정과정, 선택 등의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즉, 진로장벽은 개인이 진로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다양한 경험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2.2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7]이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

7) 반두라(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환경적 요구에 대처할 때 자신의 대처능력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그에 따라 자심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대처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www.kci.go.kr

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의미하며,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93). 따라서 잠재적으로 문화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중문화자들에게 높은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David, Okazaki, Saw, 2009). 고한다. 특히 이중문화자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지각되는 능력은 두 문화를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bicultural self-efficacy)이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LaFomboise, Coleman 및 Gerton(1993)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중문화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이중문화적 역량 요소로 문화적 신념 및 가치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ultural beliefs and values), 이중집단(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positive attitudes toward both groups), 이중문화 효능감(bicultural efficacy),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ability), 역할수행(role repertoire), 사회안정성(groundedness) 등을 제시하였다. 문화적 신념 및 가치에 대한 지식은 역사, 기관, 의식(예절, 관례), 그리고 주어진 문화에 대하여 개인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중집단(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개인 자신이 권리 안에서 바람직한 목표로서의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이 긍정적으로 각각의 문화적 그룹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적 태도가 없다면 개인은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으로 느끼는 능력이 제한될 것이다.

이중문화효능감은 이중문화 신념으로 표현되며 개인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타협 없이 두 문화 내에서 만족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는 신념 혹은 신뢰와 같이 정의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주어진 문화에서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들을 언어적 및

를 적게 경험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험이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생활 만족도로 우울증이나 부적응으로 나타나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www.kci.go.kr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함에 있어서의 개인의 효과성을 말한다. 역할 수행은 개인이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적절한 행동과 다양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행동들 혹은 역할들의 범위가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문화적 역량의 수준이 높아진다. 사회 안정성은 비주류 및 주류 두 가지 문화에서 안정적인 사회 네트워크 형태를 확립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높은 적응력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David, Okazaki 및 Saw(2009)는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안나(2013)가 처음으로 이 도구를 번안하여 재캐나다 한국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전은영(2015)은 이중문화역량의 측정도구로 활용한 바 있다.

2.3 진로태도 성숙

진로태도 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고, 선택하고, 종사하고, 직업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발달과정에 대처해 나가는 인지적 준비도이다Super(1984). Fouad(1993)도 개인이 자신의 연령수준에서 직면하게 되는 진로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에서는 진로성숙을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들로는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등이 알려져 있다. 진로발달 과정이란 본질적으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개인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적성, 신체적 능력, 다양한 역할 수행에 대한 기획, 수행 결과에 대한 개인적 평가 등이 상호작용하여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높은 긍정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이 진

www.kci.go.kr

로태도에서도 더욱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김현옥, 1989).

이기학(1997)은 진로선택에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구조론적 관점과 미래성공을 위한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태도를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하면서 갖게 되는 잠재적인 특성을 경험적으로 추출하고 진로태도의 성숙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하도록 경험적 방법을 통해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목적성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차원이다, 확신성은 자신의 진로선택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성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의 태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선행연구 고찰

2.4.1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태도 성숙

진로장벽 인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동안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진로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학력 등)들까지 폭넓게 연구주제들이 다루어져왔다.

김은영(2002)은 진로장벽 인식과 관련된 변인으로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분석하였고, 이연미(2002)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아라(2006)는 학업우수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서 진로태도

www.kci.go.kr

성숙은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지만 학업 효능감과 진로장벽 인식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태도 성숙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지 않고 학업 효능감이라는 매개를 통해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항심(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장벽 인식이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지혜(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인식이 직업가치보다 진로태도 성숙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지각된 진로장벽 인식이 낮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상희(2005)는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으며, 진로장벽 인식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감을 낮추고 진로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다문화 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양희, 2008; 이희정, 김금미, 2010; 손경옥, 2011)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진로장벽 인식이 높은 학생이 낮게 인식하는 학생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2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을 연구한 Ito(2006)에 의하면,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은 진로탐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에 대한 기회조차 갖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자아정체감이 높은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탐색 및 선택의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여도 인내심을 가지고 성숙한 진로태도를 보인다고 한다(Jeon, 2011). Shiffman(2010)는 이중문화 속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중문화 역량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보다 개인의 직업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사회와의 상호 작용에서도 더 효과적이며 진로태도가 높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수행된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안나(2013)의 연

www.kci.go.kr

구에서는 재캐나다 한국인 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조절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은영(2015)은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를 밝혔다. 설은정(2012)의 연구에서는 이중문화역량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 성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 김수리(2005)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기학(1997)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의 5가지 하위 각각의 평균 점수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밝혔으며, 최은희(200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영주(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초등학생의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수행되었지만,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28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25부를 제외하고 총 2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www.kci.go.kr

3.2 측정도구

3.2.1 진로장벽 인식 척도

진로장벽 인식 척도는 황매향, 이은설 및 유성경(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이해의 부족(4문항), 자신감의 부족(11문항),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8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6문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4문항),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4문항), 경제적 어려움(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인식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인식에 대한 전체 Cronbach's α 값은 .94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0 ~.83의 범위로 나타났다.

3.2.2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척도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은 David, Okazaki 및 Saw(2009)가 개발한 Bicultural Self-Efficacy Scale(BSES)을 이안나(2013)가 번역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들이 단일 차원성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전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표본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KMO가 .883로 나왔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도 귀무가설이 기각($\chi 2=4503.699$, $p<.001$)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첫째 요인은 사회관계능력, 둘째 요인은 정서적유대감, 셋째 요인은 이중언어능력, 넷째 요인은 이중문화자부심, 다섯째 요인은 이중문화태도, 여섯째 요인은 인간관계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요인인 인간관계능력(3번, 25번 문항)은 신뢰도가 .57로 낮게 나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의 총 설명력은 경험적 기준치인 60%를 상회하는 67.4%의 수준을 보였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5 ~.90의 범위로 나타났다.

www.kci.go.kr

3.2.3 진로태도 성숙 척도

초등학생의 진로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ites(1974)의 CMI 도구를 이기학(1997)이 중학교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역하여 만든 진로태도성숙 검사 도구를 다시 김재호(2006)가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이 진로선택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태도검사로 하위 영역별 문항은 준비성,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 각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방식으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진로태도 성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4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자료들의 통계처리를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장벽 인식,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www.kci.go.kr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5%(133명), 여학생이 52.5%(147명)이며, 학년은 4학년 26.4%(74명), 5학년 40.0%(112명), 6학년 33.6%(94명)이다. 학교성적은 상 26.8%(75명), 중 55.7%(156명), 하 17.5% (49명)이었다. 부모님의 국적은 중국이 37.1%(104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30.4%(85명), 필리핀 9.3%(26명), 일본 3.6%(10명), 캄보디아 2.5%(7명), 기타 17.1%(48명)로 나타났다.

아버지 나이는 40대 이하 78.9%(221명), 50대 이상 21.1%(59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나이는 30대 이하 53.6%(150명), 40대 이상 46.4%(130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 34.3%(94명), 고졸 51.4%(144명), 대졸이상 14.3%(40명)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44.6%(125명), 고졸 47.1%(132명), 대졸이상 8.2%(23명)로 나다났다. 다문화 학생이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은 상 32.9%(92명), 중 54.6%(153명), 하 12.5%(35명)로 응답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21.8%(61명), 근로 및 농어업 44.3%(124명), 기타 33.9%(95명)였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사무직 24.6%(69명), 근로 및 농어업 50.7%(142명), 기타 24.6%(69명)로 나타났다.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다문화 초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에 대한 분석 결과, 진로장벽 인식 전체의 평균은 1.92점이었다. 하위요인별로는 성역할 갈등 및 성 차별이 평균 2.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1.95로 높았다. 반면,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1.80으로 가장 낮았다.

다문화 초등학생의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3.44점이며, 이중문화자부심 3.7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관계능력이 3.58이었다. 이중언어능력 2.9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은 전체 평균이 3.29점이었고, 하위요인 중 목적성이

www.kci.go.kr

3.42점으로 가장 높고, 결정성이 3.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진로장벽인식	자기이해 부족	1.00	3.75	1.90	.56
	자신감의 부족	1.00	3.82	1.90	.48
	성역할 갈등 및 성 차별	1.00	3.25	2.12	.5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00	3.17	1.80	.56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00	3.25	1.86	.60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1.00	4.00	1.95	.65
	경제적 어려움	1.00	3.00	1.83	.54
	진로장벽인식 전체	1.07	3.31	1.92	.45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사회관계능력	1.00	5.00	3.58	.84
	정서적유대감	1.50	5.00	3.41	.71
	이중언어능력	1.00	5.00	2.94	.77
	이중문화자부심	1.67	5.00	3.73	.81
	이중문화긍정태도	1.38	5.00	3.45	.85
	자기효능감 전체	1.78	4.91	3.44	.92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1.00	5.00	3.14	.73
	목적성	1.17	5.00	3.42	.94
	확신성	1.67	5.00	3.35	.71
	준비성	1.67	5.00	3.30	.70
	독립성	2.17	4.67	3.25	.47
	진로태도성숙 전체	2.33	4.33	3.29	.42

4.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진로장벽 인식,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장벽 인식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진로태도 성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하위요인 간

www.kci.go.kr

의 상관관계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기이해부족	1														
자신감부족	.689**	1													
성역할갈등	.607**	.603**	1												
중요타인갈등	.597**	.641**	.579**	1											
미래불확실	.568**	.711**	.531**	.725**	1										
진로정보부족	.540**	.629**	.627**	.454**	.456**	1									
경제적곤란	.596**	.693**	.592**	.654**	.683**	.511**	1								
사회관계능력	-.409*	-.376*	-.340*	-.190*	-.210*	-.345*	-.326*	-.388*	1						
정서적유대감	-.337*	-.426*	-.216*	-.197*	-.214*	-.354*	-.240*	-.356*	.661**	1					
이중언어능력	-.263*	-.429*	-.252*	-.177*	-.201*	-.281*	-.262*	-.344*	.412**	.402**	1				
이중문화자부심	-.357*	-.450*	-.510*	-.307*	-.276*	-.489*	-.423*	-.503*	.542**	.460**	.539**	1			
이중문화긍정성	-.437*	-.510*	-.505*	-.336*	-.404*	-.439*	-.432*	-.545*	.630**	.512**	.558**	.745**	1		
진로태도성숙	-.553*	-.658*	-.592*	-.574*	-.630*	-.614*	-.664*	-.750*	.334**	.241**	.170**	.416**	.402**	.403**	1

*P<.05, **P<.01

4.4 주요 변수들 간의 영향

4.4.1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인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 전체가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인의 자기상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125로 2.189(du<d<4-du)보다 작아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었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 인식(p<.001)은 진로태도 성숙에

www.kci.go.kr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인식이 높을수록(B=-.707) 진로태도 성숙은 낮아지며 설명력은 56.3%로 나타났다.

<표 3 진로장벽 인식 전체가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	p
상수	4.657			
진로장벽인식 전체	-.707	-.750	-18.909	.000***
	F=357.555***, R2=.563, adjR2=.561			

*p<.05, **p<.01, ***p<.001

진로태도 성숙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잔차가 정규성(Kolmogorov-Smirnov's p=.200>.05)과 등분산(Breusch-Pagan's p=.636>.05) 가정을 만족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 하위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인의 자기상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107로 2.152(du<d<4-du)보다 작아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VIF(분산팽창요인)지수는 1.991~3.284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 하위요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래불확실(p<.01),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p<.001), 경제적 어려움(p<.001)이 종속변수인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불확실(B=-.135)이 높을수록,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B=-.164)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B=-.198)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낮아지며, 설명력은 59.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자기

www.kci.go.kr

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차별, 중요 타인 갈등은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잔차가 정규성(Kolmogorov-Smirnov's p=.066>.05)과 등분산(Breusch-Pagan's p=.945>.05) 가정을 만족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로장벽 인식 하위요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구 분	B	β	t	p
상 수	4.619			
자기이해부족	-.008	-.011	-.192	.848
자신감부족	-.093	-.108	-1.532	.127
성역할갈등/차별	-.081	-.099	-1.714	.088
중요타인갈등	-.019	-.025	-.401	.689
미래불확실	-.134	-.192	-2.932	.004**
진로/직업정보부족	-.164	-.253	-4.629	.000***
경제적어려움	-.192	-.247	-4.019	.000***
	F=56.049***, R2=.591, adjR2=.580			

*p<.05, **p<.01, ***p<.001

4.4.2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먼저, 독립변인인 다문화 초등학생의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전체가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인의 자기 상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7로 2.189(du<d<4-du)보다 작아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이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p<.001)은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251) 진로태도 성숙은 높아지며 설명력

www.kci.go.kr

은 16.3%로 나타났다.

<표 5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 전체가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구 분	B	β	t	p
상수	2.434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전체	.251	.403	7.350	.000***
	F=55.671*** , R2=.163, adjR2=.160			

*p<.05, **p<.01, ***p<.001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잔차가 정규성(Kolmogorov-Smirnov’s p=.200>.05)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잔차가 정규성(Kolmogorov-Smirnov's p=.066>.05)과 등분산(Breusch-Pagan's p=.755>.05) 가정을 만족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 초등학생의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인의 자기 상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126로 2.152(du<d<4-du)보다 작아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VIF(분산팽창요인)지수는 1.557~2.847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중언어능력(p<.05), 이중문화자부심(p<.01), 이중문화긍정태도(p<.05)가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자부심(B=.136)과 이중문화긍정태도(B=.105)는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며, 이중언어능력(B=-.063)은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낮아지는 것으

www.kci.go.kr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1.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사회관계능력, 정서적유대감,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이중문화적 자기 효능감 하위요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β	t	p
상 수	2.423			
사회관계능력	.061	.123	1.524	.129
정서적유대감	-.010	-.017	-.237	.813
이중언어능력	-.063	-.138	-2.061	.040*
이중문화자부심	.136	.283	3.404	.001**
이중문화긍정태도	.105	.200	2.207	.028*
	$F=14.697^{***}$, $R^2=.211$, $_{adj}R^2=.197$			

*p<.05, **p<.01, ***p<.001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검정과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잔차가 정규성(Kolmogorov-Smirnov's p=.200>.05)등분산(Breusch-Pagan's p=.107>.05) 가정을 만족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인식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이 높을수록(B=-.707) 진로태도

www.kci.go.kr

성숙은 낮아지며 설명력은 56.3%로 나타났다.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 인식 하위요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래불확실,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불확실(B=-.135)이 높을수록,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B=-.164)이 많을수록, 경제적 어려움(B=-.198)이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이 진로장벽 인식을 낮게 지각한다는 김은영(2001)의 연구와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태도 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지혜(2007)의 연구, 그리고 진로태도 성숙이 높은 초등학생은 진로장벽 인식을 낮게 지각한다는 김선중(2005)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는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진로장벽 인식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장벽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김양희(2008)의 연구와 진로장벽 인식이 낮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높아지고 더 통합된 진로정체감을 갖는다고 주장한 손경옥(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둘째, 다문화 초등학생의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p<.001)은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251) 진로태도 성숙은 높아지며 설명력은 16.3%로 나타났다.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중언어능력(P<.05), 이중문화자부심(p<.01), 이중문화긍정태도(p<.05)가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자부심(B=.136)과 이중문화긍정태도(B=.105)가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높아지며, 이중언어능력(B=-.063)은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www.kci.go.kr

구결과는 이중문화 속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중문화 역량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보다 개인의 직업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사회와의 상호 작용에서도 더 효과적이며 진로태도가 높다고 보고한 Shiffman(201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중문화 역량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 성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인다는 설은정(2012)의 연구와 이중문화 역량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의 하위요인 각각의 평균 점수가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이기학(199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다문화 초등학생의 이중문화적응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이영주(2016)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 인식의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은 진로태도 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이러한 진로장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진로체험 교육을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하고, 진로인식과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이중언어능력, 이중문화긍정태도, 이중문화자부심이 진로태도 성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두 문화배경을 가진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이중문화라는 자신만의 강점을 융합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진로장벽을 낮추어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에게 특화된 진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점차 줄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놓치게 된다. 향후 자녀들의 이중문화 사용에 대한 자긍

www.kci.go.kr

심을 높여주고, 다문화 부모의 모국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이중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외국인 부모가 대부분 동남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오히려 자긍심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향후 보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진로태도 성숙에 대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비교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실시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진로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남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한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해 유익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기정・정은미・정희정・이송이(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권 1호, 한국가족복지학회. 5쪽~22쪽.

교육인적자원부(2016).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대책.

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국가청소년위원회.

www.kci.go.kr

김봉환・정철영・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수리 (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재호(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양희(2008). 학업 우수 여자청소년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종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권 3호, 한국심리학회. 447쪽~465쪽.
김윤주(2010). 초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은영(2002). 한국 대학생 진로장애탐색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권 1호, 한국심리학회. 219쪽~231쪽.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혜진(2014). 초등학생의 성역할 청제감 유형과 진로장벽인식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25쪽~154쪽.
박주희・남지숙(2010).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권 2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9쪽~152쪽.
설은정(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경옥(2011).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인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12권 1호,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1쪽~15쪽.
손은령(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권 2호, 한국심리학회. 415쪽-427쪽.

www.kci.go.kr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아라(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 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안나(2013). 재캐나다 한국인 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 대처양식과 문화 정체성 및 이중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연미(2002).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영주(2016).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을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지민(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관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항심(2007).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존감 및 진로장벽의 구조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희정・김금미(2010).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인식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권 2호, 한국상담학회. 623쪽~640쪽.
전경숙(2007). 다문화교육 정책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은영(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하성(2009).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 한국 학술정보.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효능감, <교육학연구> 38권 3호, 한국교육학회. 152쪽~167쪽.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www.kci.go.kr

조지혜(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혜영・양계민(201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정책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최은희(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매향・이아라・박은혜(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권 2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25쪽~159쪽.

황매향・이은설・유성경(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인식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권 4호, 한국상담학회. 1205쪽~1223쪽.

Bandura, 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pp.117-148.

Benet-Martínez, V., and Haritatios, J.(2005).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BII): Components and psychosocial antecedents, *Journal of Personality,* 73(4), pp.1015-1049.

Carrera, S. G., and Wei, M.,(2014). Bicultural competence, acculturative family distancing, and future depression in Latino/ a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pp.427-436.

Crites, J. O.(1974).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David, E. J. R., Okazaki, S., and Saw, A.(2009). Bicultur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pp.211-226.

Fouad N. A.(1993). Cross-cultural Vocational Assessment. *The Career Developments Quarterly,* 42(1). pp.4-13.

www.kci.go.kr

Ito, K.(2006). *Bicultural self-efficacy, cultural adaptation, and well of Japanese Sojourners*, ProQuest.

Jeon, K. Y.(2011). Cross-cultural adaptation of the Us consumer form of the short primary care assessment tool(PCAT): The Korean consumer form of the short PCAT(KCPCAT) and the Korean standard form of the short PCAT(KSPCAT), *Quality in Primary Care,* 19, pp.85-103.

LaFromboise, T., Coleman, H. L. K., and Gerton, J.(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pp.213-243.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pp.36-49.

London, M.(1998). Career Barriers: *How people experience, overcome and avoid failure*. LEA, pp.18

Shiffman, D.(2010). Mapping intergenerational tension in multicultural Coming-of-Age Literature, *Multicultural Perspectives.* 12(1), pp.29-31.

Super, D. E.(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approaches to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필자 소개

성　　명 : 명형철
소　　속 : 꿈다미인재교육원장
전자우편 : mhc5818@hanmail.net

투고일: 2018. 5. 31 / 심사일: 2018. 7. 12 / 심사완료일: 2018. 7. 25

www.kci.go.kr